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동향	02
2. 국외 항만 동향	08
3. 품목 및 산업 동향	13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 공고
- 인천항, 중국~베트남 기항하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 개설
- 광양항, 고전압용 육상전원공급설비 선박 전력공급 개시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중국 옌텐항,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대란 발생
- 뉴질랜드 오클랜드항,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 운영 일시 축소
- 남아공 응쿠라항, 항만 인프라 프로젝트 본격 추진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컨테이너,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 추진
-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시장 V자 회복세, 그러나 반도체 수급 차질 악화
- 철광석, 중국 및 브라질 공급차질로 인해 가격 상승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 공고¹⁾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북측 피더부두를 포함하여 서컨테이너부두 2-5 단계와 2-6단계를 통합 운영할 운영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함

- 운영사 선정은 5월 31일~8월 2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8월 4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임
- 심사위원회는 해운항만물류 및 회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며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기 경영 안정화와 화물창출능력에 가장 큰 배점을 부여함

공고 진행이 완료되면 운영사는 '23년 7월부터 2-5단계(3선석)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서컨테이너부두는 수심 20m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동화 터미널 전환을 위한 첨단화된 하역 장비 등이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부산항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②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 강화²⁾

BPA는 최근 연이은 항만 내 안전사고로 인해 항만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품질 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섬

- 북항 및 신항 일대 10개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 사고 유형에 대해 집중 점검 및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정성 등도 점검할 예정임
- 한편, 지속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수한 점검결과를 나타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을 추진할 계획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상현실(VR) 안전 교육장'을 구축할 방침임³⁾

- 지난 6월 8일 전국 항만 최초로 부산항 노·사·정·연이 협업하여 VR 안전 교육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그간 이론 위주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에서 벗어나 VR기술을 이용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장을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됨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5.31.),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dx=26351&mCode=MN1445\(2021.06.16. 검색\)](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dx=26351&mCode=MN1445(2021.06.16. 검색))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6.10.),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dx=26369&mCode=MN1445\(2021.06.16. 검색\)](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dx=26369&mCode=MN1445(2021.06.16. 검색))

3)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6.08.), [https://www.portbusan.go.kr/board/boardView.do?MENU_ID=M0000032&CATEGORY_CD=A&selectPage=1&SEARCH_CODE=&SEARCH_WORD=&ORD_NO=11920\(2021.06.16. 검색\)](https://www.portbusan.go.kr/board/boardView.do?MENU_ID=M0000032&CATEGORY_CD=A&selectPage=1&SEARCH_CODE=&SEARCH_WORD=&ORD_NO=11920(2021.06.16. 검색))



2) 인천항

① IPA, 항만분야 탄소중립 실현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업무협약 체결⁴⁾

🌱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6월 9일 한국가스공사와 공동으로 '저탄소 모빌리티용 인프라 구축 타당성 업무협약'을 체결함

- 금회 업무협약으로 IPA는 향후 「인천항 저탄소 모빌리티용 LNG 기반 융복합충전소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국가스공사와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임
- 또한 IPA는 항만 진출입 트레일러 및 고중량 트럭 등의 친환경화 추진이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사업모델을 확보할 예정
- 이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인천지역의 친환경 연료시장과 항만 저탄소 모빌리티 부문의 수요를 예측하고 비즈니스 모델별 경제성 분석, 중장기 로드맵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임

② 중국선사(SITC), 인천항~베트남 신규 컨테이너 항로 개설⁵⁾

🌱 IPA에 따르면 6월 24일부터 인천항~중국~베트남을 오가는 SITC의 CVS 서비스가 운영됨

- CVS 노선에는 2,400~2,500TEU급 선박 3척이 투입되어 주 1회 운항할 예정이며 해당 서비스 노선은 인천항~대련항~천진항~청도항~상해항~닝보항~호치민항~퀴논항~서면항 등을 기항함
- 중국과 베트남을 동시에 기항하는 서비스로 물동량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퀴논(Qui Nhon)항을 처음 기항하는 항로로 인천항~베트남 남부지역간 교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 6월에 새롭게 개설된 CVS 노선은 '21년 인천항에 신규 개설된 4번째 컨테이너 항로이며, 이로써 인천항 컨테이너 정기 서비스는 총 66개(카페리 항로 10개)에 이름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6.09.),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8935&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2> (2021.06.25. 검색)

5)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6.24.),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menuKey=400&boardKey=217&articleKey=19058\(2021.06.28. 검색\)](https://www.icpa.or.kr/article/view.do?menuKey=400&boardKey=217&articleKey=19058(2021.06.28.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광양항, 고전압용 육상전원공급설비 선박 전력공급 개시⁶⁾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고전압용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사용해 자동차 운반선에 전력을 공급했다고 밝힘

- AMP는 대형선박이 항내 정박시 필요한 전력을 기존 디젤 발전기가 아닌 육상전력으로 대체하여 매연,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설비임
- YGPA는 이번 자동차운반선에 전력공급을 위해 사용한 전력이 총 5.3MWh로 선박의 발전기를 가동했을 경우와 대비해서 1.6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함
- YGPA는 올해 고전압용 설비 이외에 저전압용 AMP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선박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힘

6)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6.01.), [https://www.ygpa.or.kr/kr/ypg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905&category=\(2021.06.14. 검색\)](https://www.ygpa.or.kr/kr/ypg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905&category=(2021.06.14. 검색))

4) 울산항

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항만공사, '울산항 안전근로협의회' 개최⁷⁾

☞ 울산항만공사(이하 UPA)는 하역현장 안전점검 진행상황 및 예방대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

- 최근 항만 내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협의회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해수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항만물류협회, 울산항운노동조합 등 울산항 안전 관련 기관·단체장이 참석함
- 울산해수청은 '비상 항만안전 특별점검계획'을 공유하고 협조를 당부했으며, UPA는 울산항 항만 하역 산업재해 현황과 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소개하고 대책을 논의함
- '항만안전 특별점검 기간'이 운영(5/27~6/30)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하역업체 안전근로자가 공동으로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사업장별로 안전 위해요인 발굴·개선, 산업안전보건규칙 및 항만안전 매뉴얼 이행 현장점검이 실시되고 있음

7)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6.02.),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2472\(2021.06.14. 검색\)](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2472(2021.06.14.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평택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⁸⁾

☀ 평택시 주최로 평택항 발전방향과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산·관·학이 토론하는 장이 5월 26일 마련됨

- 토론회에는 평택시장, 평택시의장, 항만관련 기관 및 업체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함
- 평택·당진항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을 대비한 新터미널 운영 개선 및 활용방안 등의 주제발표 후 토론이 진행됨
-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평택시와 당진시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의 가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용자 중심의 국제여객터미널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8) 평택시 보도자료(2021.05.26.),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id=0403060000&bidx=235608&ptidx=90>(2021.06.14. 검색)

6) 포항항

① 포항~울릉 항로 대형 여객선 취항 예정⁹⁾

☀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사업자인 대저건설은 '23년 하반기 포항과 울릉을 잇는 항로에 대형 여객선을 투입할 예정이라 밝힘

- 대저건설은 복수의 조선소를 대상으로 협상을 한 뒤 10월에 계약 후 여객선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며 여객정원 932명인 2,200톤급 여객선을 발주할 계획임

☀ 지난 '20년 2월 대형 여객선인 썬플라워호(2,394톤, 정원 920명)의 선령만기로 운항 중단 이후 신규 선박 투입을 위한 실시협약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 만큼 진행에 차질이 없게 준비할 계획이라 밝힘

- 썬플라워호 중단 이후 중형 여객선인 엘도라도호(668톤, 정원 414명)가 대체 투입되고 있었으나 중형 여객선의 경우 선체 크기로 인해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이 잦아 울릉 주민 및 생필품 등의 원활한 운송이 불가하였음
- 대형여객선 투입을 위한 울릉군·선사간 실시협약이 진행되었으나 선박규모 및 기항지 등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음
-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6월 9일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체결된 협약에 따라 대저건설은 2년 이내 선박을 건조해 취·운항하여야 하고 울릉군은 20년간 대저건설에 운항결손금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임

9) 연합뉴스(2021.06.13.),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496>(2021.06.17. 검색)



7) 대산항

① 6월부터 5부두 기능 변경¹⁰⁾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6월부터 대산항 5부두를 컨테이너와 일반화물이 같이 처리 가능한 부두로 운영한다고 발표함
- 대산항 5부두는 '11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총사업비 380억 원을 들어 '20년 12월 준공됨
- 당초 대산항 5부두는 2천 TEU급 컨테이너선 전용부두로 계획되었으나, 컨테이너 화물 처리 추이와 지역 사회 건의 등을 반영하여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부두로 준공
- 5부두는 수심을 고려하여 3만 DWT급 부두로 우선 운영을 개시하며,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5부두 전면해역 준설(수심 14m) 후 10월경부터 5만 DWT급 부두로 정상 운영 예정
- 대산항은 5부두의 개장을 통해 화물처리 여건이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함

10)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5.25.),
<https://daesan.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8105&boardKey=66&menuKey=472&currentPageNo=1>(2021.06.15. 검색)

8) 동해·묵호항

① 우기 대비 항만시설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¹¹⁾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6월 중 건설현장과 항만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
- 점검대상은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축조공사 등 건설현장 8개소와 동해항 중앙부두 등 항만(운영)시설 92개소를 대상으로 함
- 항만구역 내 배수로 배수 기능 및 지반이 취약한 항만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각 건설 현장 내 우기 위험요인, 지반붕괴 우려 구간 등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할 예정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 결함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등 각종 사고방지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1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6.03.),
<https://donghae.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8219&boardKey=7&menuKey=428&currentPageNo=1>(2021.06.14. 검색)



9) 목포항

① '비상 항만안전 특별점검 기간' 운영¹²⁾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항 항만하역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 30일 까지 안전 관련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비상 항만안전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함

- 최근 국내 항만에서 근로자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항만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는 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항운노동조합, 사업장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련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목포항 9개 부두, 23개 항만하역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위해요인을 찾아 개선할 예정임
- 또한, 사업장별 안전 시설물 파손 유무,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 여부를 점검 하여 항만물류산업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임

12)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6.02.),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31817>(2021.06.14. 검색)

10) 군산항

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7부두 임항창고 신축공사 발주¹³⁾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항의 항만경쟁력 확보를 위해 185억 원 규모의 임항창고 신축공사를 발주했다고 밝힘

- 7부두는 군산항 내 접안능력이 가장 큰 부두로 사료용 곡물과 발전용 우드펠릿을 선적한 대형 선박이 주로 이용해옴
- 하지만 부두 배후지역에 보관 창고 시설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유통화물 품질 제고 및 군산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창고 2동을 신규 건설하게 됨
- '20년 7월부터 '21년 2월까지 수행된 설계 용역 결과 약 14,000(13,983)m²의 창고 수요가 도출 되었음
- 군산항 7부두 임항창고 신규 건설은 금년 12월에 착공되어 '22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13)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 (2021.06.22.),
<https://gunsan.mof.go.kr/ko/board.do?menuidx=1115&bbsidx=31953> (2021.06.25. 검색)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옌토포항,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대란 발생¹⁴⁾

- 지난 5월 말 중국 남부 최대 공업지대인 주강 삼각주 관문인 광둥성 옌토포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옌토포항 일부 구역을 폐쇄조치함
- 당초 5월 25일에서 30일까지 임시 폐쇄를 결정하였으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6월 10일에서야 재개장함
- 다시 운영을 재개하였으나 이미 16일 이상 지속된 폐쇄로 컨테이너 야적 밀도가 높아졌으며 터미널 운영효율성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글로벌 물류대란이 발생하고 있음
- 6월 7일 기준 밀린 컨테이너만 2만 개에 달하였으며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옌토포항 기항 취소 횟수는 128건에 달함¹⁵⁾
- 또한 옌토포항의 항만 혼잡으로 인해 인근에 위치한 서커우항, 난샹항으로 선박이 몰리면서 이들 항만 역시 화물처리에 큰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머스크 등 글로벌 해운사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수에즈운하 사고에 따른 영향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함

14) Seatrade Maritime News(2021.06.17.), <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logistics/yantian-operations-start-improving-delays-over-16-days-remain>(2021.06.17. 검색)

15) Container News(2021.06.17.), <https://container-news.com/south-china-ports-disruption-triggers-more-than-130-omissions/>(2021.06.17. 검색)

2) 아시아

① 대만 선사 완하이라인(Wan Hai Line), 아시아~북미동안 컨테이너 항로 첫 개설¹⁶⁾

- 완하이라인은 아시아와 북미 동안지역을 잇는 첫 번째 컨테이너 신규노선(AA7)을 6월 21일부터 운영함
- 신규노선에는 2,700~4,000TEU급 컨테이너선 10척이 투입되며 대만을 출발하여 중국, 베트남을 경유하고 수에즈 운하를 거쳐 뉴욕 등 미국 동안지역의 항만을 연결함
-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항로가 체선으로 지연됨에 따라 미국 동안으로 갈 때는 수에즈 운하를 거치지만 미국 동안에서 아시아로 돌아올 때는 파나마운하를 거쳐 태평양을 횡단함
- AA7의 기항지는 타이베이항~샤먼항~까이펑항~수에즈운하~뉴욕항~서버너항~파나마운하~타이베이항임

16) Container News(2021.06.09.), <https://container-news.com/wan-hai-lines-launches-new-asia-america-service/>(2021.06.28. 검색)



- 그동안 완하이라인은 대만·중국과 LA/LB항을 잇던 미서안항로 4개만을 운영 중이었으며 아직 부산에서 미주노선을 취항하지는 않음

② 인도, 코로나19 이후 항만의 선석생산성 회복¹⁷⁾

📌 인도의 주요 항만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인 봉쇄조치('20년 3월)로 인해 항만의 생산성이 급락한 이후 운영상 회복세를 보임

- JOC의 분석에 따르면 '21년 4월 기준, 인도 항만에 입항한 선박이 총 1,766척으로 전년 대비 30.0%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컨테이너선은 513척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8척 증가함
- 특히 자와할랄네루항(JNPT)의 경우 컨테이너선박의 입항 횟수가 124건에서 163건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평균 재항시간(turn around time)을 33.12시간에서 32.64시간으로 감축함
- 또한 인도 내 주요 항만의 평균 재항시간도 45.31시간으로 전년 동기(47.10시간) 대비 3.8% 감소함

③ 일본발 미국 수출 컨테이너 실적 전년대비 64% 증가¹⁸⁾

📌 '21년 5월 기준,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5만 5,344TEU로 전년 대비 64.2% 증가함

- 미국의 데이터 분석기관인 데카르트 데이터마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월~5월까지 누적 물동량 기준, 총 25만 189TEU로 전년 대비 3.2% 증가함
- 일본에서 미국으로 직송된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77.6% 증가한 3만 8,629TEU를 기록하였으며, 제3국을 통해 운송된 물동량은 1만 6,715TEU로 39.9% 증가함
- 항만별로 살펴보면 도쿄항은 1만 7,435TEU로 일본 전체 컨테이너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나고야항이 1만 1,434TEU, 고베항이 9,374TEU 순임

17) JOC(2021.06.09.), https://www.joc.com/port-news/international-ports/indian-port-productivity-ticks-after-initial-covid-19-shock_20210609.html(2021.06.24. 검색)

18) JIFFA(2021.06.23.), <https://www.jiffa.or.jp/en/news/entry-7165.html>(2021.06.25. 검색)



3) 미주

① 미국 항만, 화물량 증가 지속¹⁹⁾

🚢 롱비치항(캘리포니아주)의 5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90만 7천 TEU를 기록했으며, 월 물동량 실적으로는 처음으로 90만 TEU 이상을 기록함

- 월 물동량이 90만 TEU 이상을 기록한 것은 롱비치항 110년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이며, 올해 3월에 기록한 역대 최대 실적(84만 TEU)을 초과함
- 특히, 서비스보다 상품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5월 전자상거래 매출이 코로나19 전염병 이전 수준에 비해 더 높았으며, 주택 매매와 리모델링 증가로 목재, 가전 등 내구재 수요가 증가함
- 다만, 여름철 수요 증가로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공컨테이너의 반출이 증가하면서 공컨테이너 비율도 같이 증가하고 있음

🚢 찰스턴항(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5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23만 1천 TEU를 기록했으며, 월 물동량 실적으로는 역대 2번째를 기록함

- 올해 3월 24만 9천 TEU를 기록한 이래로 두 번째 많은 물동량이며, 역대 최대 5월 실적임
- 찰스턴항은 미국 남동부 시장의 성장으로 5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46.5%, 수출은 24.3% 증가함

🚢 서배너항(조지아주)의 5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47만 9천 TEU를 기록했으며, 월 물동량 실적으로는 역대 2번째를 기록함

- 올해 3월 49만 8천 TEU를 기록한 이래로 두 번째 많은 물동량이며, 역대 최대 5월 실적임
- 서배너항은 연속 10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회계연도 기준 최초의 연 500만 TEU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19) American Shipper(2021.06.11.), <https://www.freightwaves.com/news/broken-records-historic-cargo-surge-still-making-waves-at-us-ports>(2021.06.17. 검색)



4) 유럽

① 독일 선사 하팍로이드(Hapag-Lloyd), 대우조선해양에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 6척 발주²⁰⁾

- ✎ Hapag-Lloyd는 2만 3,500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대우조선해양에 지난 6월 발주함
- 한화 1조 1,225억 원에 이르는 금회 선박 발주는 '20년 12월에 체결된 계약의 옵션분으로 '24년까지 선주사인 Hapag-Lloyd에 인도될 예정임
- 6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들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Hapag-Lloyd가 발주한 2만 3,500TEU급 선박은 총 12척임
- Hapag-Lloyd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컨테이너선 발주는 LNG 추진선에 대한 높은 수요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선대 개선 및 전략마련을 위해 추진되었음

20) Seatrade Maritime News(2021.06.23.), <https://www.seatrade-maritime.com/containers/hapag-lloyd-orders-six-lng-dual-fuel-23500-teu-boxships-dsme> (2021.06.28.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오클랜드항,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 운영 일시 축소²¹⁾

- ✎ 6월 17일 오클랜드항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의 수동 작업을 일시적으로 확장하고 자동화 운영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함
- ✎ 이는 당일 컨테이너 자동화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며 수동 작업 확대를 위해 컨테이너 터미널을 재구성하고 있음
- 자동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자동 스트래들캐리어로 운반되던 컨테이너가 적재된 컨테이너와 충돌함
- 자동화 단말기의 안전시스템 작동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다른 곳에서 안전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동화 구역의 위험요소가 완전히 조사되고 안전 통제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자동화 작업 축소를 결정함
- 대신 뉴질랜드 수출입업자의 이익을 위해 자동화 작업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수동 작업규모를 확대하여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임
- ✎ 오클랜드항 항만당국은 현 단계에서 컨테이너 터미널 구성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으나 해외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예정이라 밝힘

21) Port of Auckland(2021.06.17.), <https://www.poa.co.nz/media-publications/Pages/Ports-of-Auckland-Automation-Update.aspx> (2021.06.17. 검색)



6) 아프리카

① 응쿠라(Ngqura) 항만 인프라 프로젝트 본격 추진²²⁾

📌 6월 9일 남아공 주요 항만을 관리하는 TNPA(Transnet National Ports Authority)는 응쿠라 항만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시행사로 CDC(Coega Development Corporation)를 선정함

- 해당 프로젝트는 엘리자베스포트항에 위치한 망간 터미널과 액체 터미널을 응쿠라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현재 엘리자베스포트항에 위치한 망간 및 액체 터미널은 향후 워터프론트 개발 2단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응쿠라항으로 이전이 계획되었음

📌 이로써 지난해 중단됐던 응쿠라 항만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엘리자베스포트항의 워터프론트 개발에도 속도감이 붙을 전망이다

- 지난해 트랜스넷으로부터 응쿠라항의 액체 터미널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OTGC(Oiltanking Grindrod Calulo)가 상업적 실행가능성을 이유로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한 바 있음

22) Africa ports&Ships(2021.06.09.) <https://africaports.co.za/2021/06/06/africa-ports-ships-maritime-news-7-june-2021/#3711>(2021.06.17. 검색)



3. 품목 및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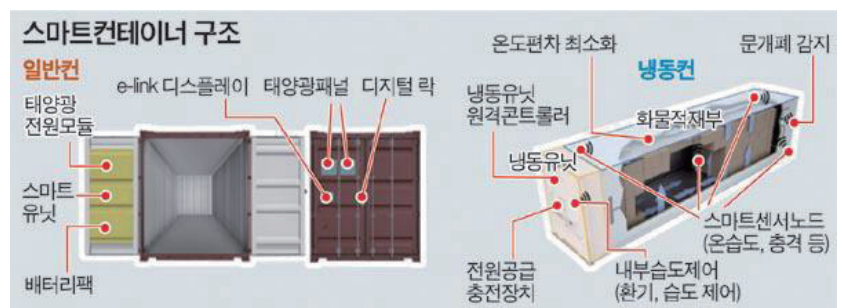
1) 컨테이너

①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 추진²³⁾

- ☀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에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이 추진될 예정임
- 해양수산부의 '스마트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인 동아대학교 스마트물류 센터를 포함하여 HMM, 한국해양진흥공사, 삼성중공업,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국내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 예정임
- '24년 말까지 앞으로 4년간 국비 85억 원, 민간사업비 5억 5,000만 원 등 총 110억 5,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임
- ☀ 컨테이너의 위치, 충격여부, 문개폐 여부, 온도·습도 조절 등 기존의 소형 탈부착형 센서를 통합·모듈화하여 내장형 스마트 컨테이너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임
- 현재 탈부착형 센서는 운반 도중 떨어지거나 전원공급 문제, 통관 절차 등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 ☀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컨테이너가 개발되어 세계 표준으로 채택된다면 국제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신산업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또한 스마트연구센터에 따르면 스마트 컨테이너 시장 규모는 '25년 최소 22억 달러에서 '34년 10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23) 국제신문(2020.06.14.),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0615.22013002824\(2021.06.17. 검색\)](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0615.22013002824(2021.06.17. 검색))

스마트 컨테이너 구조



자료: 국제신문(2021.06.14.),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0615.22013002824\(2021.06.17. 검색\)](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0615.22013002824(2021.06.17. 검색))



2) 양곡

① 5월 주요 식용 곡물 수입단가는 상승한 반면 주요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는 하락²⁴⁾

 식용 밀과 옥수수의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상승하였지만 사료용 밀과 옥수수의 수입가격은 감소함

- 5월 밀(식용)의 수입단가는 톤당 302달러로 전월 대비 1.6% 상승, 옥수수(식용)의 수입단가도 전월 대비 8.6% 상승한 287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채유용 콩의 수입단가는 전월대비 6.0% 하락한 톤당 488달러임
- 사료용 밀(톤당 268달러)과 옥수수(톤당 243달러)의 수입단가는 모두 전월 대비 각각 0.8%, 2.6% 하락한 반면 대두박의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3.3% 상승한 톤당 447달러를 기록함

② 5월 국제 곡물 선물가격지수 전월대비 8.9% 상승한 160.1 기록²⁵⁾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 모두 생산량 악화 전망,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선물가격 지수가 상승함

- 5월 밀의 선물가격은 톤당 263달러로 전월대비 7.0% 상승하였으나 미농무부의 역대 최대 세계 밀 생산량 전망(21년 5월)으로 인해 향후 하락 예상
- 옥수수의 5월 선물가격은 전월 대비 13.9% 상승한 톤당 276달러를 기록, 5월 중순 이후 주산지인 미국 중서부지역의 기상회복으로 인해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세계 기말재고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두유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콩의 선물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7.6% 증가한 톤당 579달러를 기록함

24) 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월보 6월호(2021.05.31.),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5978/page/1\(2021.06.25. 검색\)](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5978/page/1(2021.06.25. 검색))

25) 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월보 6월호(2021.05.31.),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5978/page/1\(2021.06.25. 검색\)](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5978/page/1(2021.06.25. 검색))

3) 시멘트

① 7년간 동결된 시멘트 가격, 7월에 5.1% 인상 예정²⁶⁾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시멘트 업계와 시멘트 1톤 가격을 7만 5천 원에서 7만 8,800원으로 5.1% 인상하기로 합의함

- 인상되는 가격은 7월 1일부터이며, 연합회 측은 레미콘-시멘트 업계가 4월부터 논의를 거쳐 상생 차원에서 이번 가격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힘
- 시멘트 업계는 최근 유연탄 가격 및 인건비 상승과 안전관리비용 증가로 제조원가가 상승했으나 시멘트 값이 7년째 동결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옴
- 레미콘 업계도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운송비 인상 등의 비용 증가에도 가격 상승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가격 인상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번 시멘트 값 인상은 레미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6) 연합뉴스(2021.06.17.), [https://www.yna.co.kr/view/KR20210617152000003?input=1195m\(2021.06.17. 검색\)](https://www.yna.co.kr/view/KR20210617152000003?input=1195m(2021.06.17. 검색))

4) 모래

① '21년 4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95.8% 증가²⁷⁾

☀ '21년 4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이 모두 양호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95.8% 증가한 18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 이번에 기록한 수주액 18조 8천억 원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94년 이래 4월 실적으로는 가장 높은 실적임
- 이러한 증가세는 '20년 11월부터 6개월 연속되고 있으며 4월에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95.8%)함

☀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73.5%, 민간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103.2% 증가함

- 공공수주는 '94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4월 실적인 4조 2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73.5%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 민간수주는 역대 최대 4월 실적인 14조 7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03.2%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2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시장전망(2021.06.09.),
http://www.cerik.re.kr/report/prospect/
detail/2509(2021.06.17. 검색)

5) 석탄

① 중국, 석탄가격 급등으로 석탄 시장 통제 강화²⁸⁾

☀ 중국 정부는 연이은 광산 사고와 석탄가격 급등으로 탄광의 조업을 금지하는 등 석탄 시장의 통제를 강화함

- 중국은 지난 6월 4일 허난성 탄광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헤이룽장성 탄광에서도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망자 2명 및 실종자 14명이 발생함
- 중국 허베이성 정부는 잇따른 광산 사고와 더불어 석탄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산업활동 회복 및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체 탄광의 조업을 전면 금지 조치함
- 또한 탄가 상승 억제를 위해 연료탄 가격상한제(ceiling)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탄광업체의 판매가 제한과 벤치마크 가격 고정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28)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6.23.),
https://www.kores.net/komis/trend/
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
cd=130(2021.06.24. 검색)



6) 철광석

① 중국 및 브라질 공급차질로 철광석 가격 상승²⁹⁾

- ✎ 중국의 가격상승 억제로 인해 하락한 철광석 가격이 주요국의 공급차질로 인해 다시 상승세를 기록함
 - 5월 20일 중국 정부의 철광석 가격 안정화 조치로 인해 톤 당 226.5달러까지 치솟았던 철광석 가격이 191.4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중국과 브라질의 공급차질로 6월 11일 기준 212.1달러로 다시 상승함
- ✎ 브라질 발레사는 지난주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주에 위치한 싱구(Xingu) 광미덤 붕괴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인근 팀포페바(Timbopeba) 및 알레기아(Alegria)광산의 일부 조업 중단을 발표함
 - 지난 6월 9일 미나스 제라이스주의 지역노동부는 발레사의 싱구 광미덤 붕괴가 임박했다고 경고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근광산 조업중단에 따라 하루 약 4만 톤의 철광석 생산이 감소함
- ✎ 또한 주요 생산국인 중국 역시 산시성 소재의 석탄 외 갭내 광산에 대한 전면 점검 및 폐쇄 명령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하였음
- ✎ 브라질과 중국의 공급 차질로 인해 연간 약 3,000만 톤의 철광석 감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추가적인 철광석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9)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6.16.),
https://www.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1.06.17. 검색)

7) 기타광석

① 동, 니켈 등 주요 광물가격은 미연준의 테이퍼링 우려 및 중국 전략물자 방출 가능성에 따른 하락세 기록³⁰⁾

- ✎ 미국의 양적완화 테이퍼링(속도조절) 추진 우려 및 중국의 전략물자 방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비철금속의 하방압력이 발생
 - 6월 3주차 전기동과 니켈 가격은 전주 대비 3.7%, 1.5% 하락세를 기록함
 - 중국의 국가비축국(SRB)의 동, 아연, 알루미늄 등 전략물자 방출가능성과 정부당국의 원자재 가격규제 심화로 하방압력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중국의 전략비축금속 방출량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타이트한 수급상황에 따라 상당기간 전기동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30)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6.21.),
https://www.kores.net/komis/trend/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1.06.24. 검색)



8) 목재

① 목질바닥재와 합판 한국산업표준, 현장 중심으로 개정³¹⁾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질재료 분야인 목질바닥재 2종, 합판 5종, 방부목재 5종, 섬유판, 파티클 보드 등 한국산업표준(KS) 15종을 개정함

- 목재이용법으로 의무화된 품질표시제도와 표시를 위해 반드시 검사해야 하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과 한국산업표준(KS)의 검사항목을 일치화하여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줄이고 제품의 안전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
- 개정된 한국산업표준은 공공시설 등 관공서 납품을 위한 한국산업표준 인증 수요가 많은 목재 제품이며 현장을 중심으로 한 표준 개정으로 산업계의 비용부담 및 불편을 완화하고 제품의 안전성은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의 증진, 기업 경제적 부담 완화,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의 국가표준 반영 등 '규제개혁'의 일환임

31) 산림청 보도자료(2021.06.09),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59479&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dx=3&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I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6.14. 검색\)](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59479&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dx=3&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I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6.14. 검색))

9) 고철

① 우리나라 철스크랩 수출 11개월째 증가 기록³²⁾

5월 기준, 철스크랩 수출은 4만 7,107톤으로 전년 동월대비 122.6% 증가하였으며, '20년 7월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함

- 수출 증가세를 주도한 3대국은 중국, 인도, 태국으로 금년 1~5월 수출량의 75%가 이들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 국가별로는 중국 6만 4,68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0% 증가했으며, 인도 4만 8,345톤(38.7% 증가), 태국 2만 5,952톤(218.7% 증가)을 기록함
- 그 밖에 일본 1만 5,712톤(+72.5%), 대만 1만 3,408톤(+50.8%)으로 각각 점유율 8.4%와 7.2%를 차지함

32) 스크랩워치(2021.06.22.), <http://www.scrapwa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57>(2021.06.25. 검색)



10) 철재

① 하반기 철재 주요 수요산업 전망³³⁾

- ✎ 올 하반기 주요 철강 수요산업인 기계, 조선, 자동차, 건설업 등은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에 의해 전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 기계산업의 경우 주요국들의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및 ICT 산업의 세계적 호황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기계연구원에 따르면 하반기 기계산업 수요 증대로 인해 '21년 국내 기계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1%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 조선업의 경우 상반기 이미 컨테이너 선박 발주 강세로 수주잔량이 '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하반기 카타르 LNG선 대량 발주 등의 기대감이 존재함
 - 이미 국내 대형3사 조선업계는 상반기 선박 발주로 '25년까지 도크 일정이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와 함께 조선용 후판 등 강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 자동차업계는 상반기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으로 하반기에는 재고를 늘리기 위한 증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신차 출시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또한 국내의 경우 6월 말에 종료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오는 1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내수시장에서의 수요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 ✎ 그러나 여전히 반도체 부족사태의 장기화 및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음

33) 철강금속신문(2021.06.16),
<http://p.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4366>(2021.06.17. 검색)



11) 자동차

① V자 회복 중인 글로벌 자동차시장, 반도체 부족 직면³⁴⁾

자동차산업협회(KAMA)의 글로벌 자동차 시장 판매 현황 조사 결과,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V자로 회복하고 있으나 반도체 수급 차질이 악화되고 있음

-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소비 경기가 회복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올해 4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함
- 반면,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인 자동차 수요를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임

자동차 판매량은 주요 자동차시장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중국시장은 작년 4월부터 자동차 판매가 증가세를 보였으며 반도체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금년 반도체 부족의 전 세계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을 상회하는 자동차 판매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
- 미국시장은 연초 코로나19 재확산 및 한파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자동차 판매가 부진했으나, 재정 부양책 발표,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여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함
- 유럽시장은 경기회복 속도 차이로 판매량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올해 전기동력차(HEV, EV, PHEV) 판매량이 최대를 기록했던 작년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34)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1.06.03.), http://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502&menun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1.06.14. 검색)

(단위: %)

2021년 세계 3대 자동차시장
판매 증가율

구분	1월	2월	3월	4월	4월 누적	
					전년 동기 대비	'19년 동기 대비
미국	-3.7	-12.6	59.7	111.4	29.1	1.7
중국	29.9	369.4	76.6	8.8	52.3	4.6
유럽	-25.7	-20.3	62.7	255.9	23.1	-24.9
세계	3.4	12.4	52.7	77.6	32.4	-6.1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1.06.03.), http://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502&menun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1.06.14. 검색)



다만, 반도체 수급 차질의 연내 해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 외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자동차판매의 V자 회복세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임

-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재고 확보,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 최대 5배 많은 반도체가 필요한 전기 동력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 IT 등 여러 업종의 반도체 확보 경쟁 심화로 반도체 부족 사태는 연내 해소가 어려울 전망이다
- 그 외에도 원유, 철강, 구리 등 기타 원자재 및 해상운송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부품수급 차질이 발생할 리스크도 존재함

12) 잡화

① '21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국내 기계 산업의 수출 금액은 39.2% 증가한 180억 6,600만 달러, 수입 금액은 31.0% 증가한 126억 3,800만 달러 기록³⁵⁾

4월 기계 산업 수출은 모든 업종에서 증가세를 나타냄, 국별로는 베트남(38.9%), 중국(18.4%), 미국(57.7%)으로의 수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4월 기계 산업 수입은 조선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였으며 국별로는 미국(65.1%), 일본(15.9%)과 중국(25.9%)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35)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5월호(2021.06.14.), <https://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 (2021.06.28. 검색)

(단위: 백만 달러, %)

'21년 4월 기계 산업 업종별 품목 동향

구분	'21. 4				'21. 1~4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기계 산업(합계)	18,066	39.2	12,638	31.0	73,570	19.1	45,652	27.2
일반기계업	4,493	17.8	4,417	37.9	17,163	3.7	15,621	34.6
전기기계업	3,332	35.7	2,216	28.0	13,363	23.8	7,955	25.0
정밀기계업	1,618	32.8	2,216	37.8	6,333	25.2	10,417	39.6
수송기계업	7,076	62.0	2,977	21.5	33,413	28.0	9,522	12.0
조선	2,298	15.8	108	-55.3	8,248	28.5	640	-28.5
금속제품업	946	25.8	557	17.7	3,298	1.2	2,137	8.9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유류·화학공업생산물

① 울산항, 연간 1만 3천 톤 생산가능한 수소액화플랜트 건설 시작³⁶⁾

지난 6월 21일, 효성그룹과 미국계 산업용 가스업체 린데(Linde)가 합작한 수소액화 플랜트가 울산항 효성화학 용연 3공장 부지에 건설을 시작함

-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상태(-253℃)로 냉각해 액화된 수소로 기체 수소대비 경제성이 우월하여 버스, 트럭, 선박 등 대형 모빌리티 연료로 적합함
- 효성-린데 합작사는 효성화학 용연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에 린데그룹이 보유한 수소액화 기술 및 설비를 적용해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울산항에는 액화수소의 생산·운송 및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망라하는 수소 인프라가 완성될 예정임

'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소 기반 경제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정부도 규제개선과 수소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수소 산업 생태계 저변 확대 지원 계획

- 산업부는 연내 액화수소 플랜트 관련 안정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수소 상용차 등 R&D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

36)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원사동향(2021.06.21),
https://www.kpia.or.kr/index.php/bbs/view/id/101386/page/1/term_id/6/v_mode/user
 (2021.06.28.검색)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1. 6. 30

편집 겸 발행인 장영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
